

# 무주군,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만전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영농현장 방문 동절기 예방활동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 일행이 지난 18일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소재한 사과 과원을 찾아 농가들과 병해충 방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현장에서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활동과 예방제거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 자리했던 농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무주군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 등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전북지역에서는 2020년 익산에서 2농가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과 농작업자, 묘목 등의 전염원 관리를 강화해 추가 발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무주군은 전국 재배면적 대비 1.9%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로서 자체 전정

작업단 육성과 농작업도구 소독 철저, 건전 묘목 구입, 예방약제 적기 살포 등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방제 사각대사인 영세농과 고령농 관리(예방·방제)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으로, 봄철에 활성화된 케양에서 흘러나온 산출액이 작업자와 빗물, 바람, 곤충 등 전파 매개요인을 통해 확산된다.

이에 무주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방과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3회) 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2월말 경에는 행정 명령을 내려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방침이다.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새해영농교육(7회, 460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수막과 전광판, 리플릿,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서도 과수화상병 예방법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군의 과수 재배면적은 1,053ha(1,230농가)정도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 14일까지 1,118농가(90.2%)에 대한 전정(케양제거)을 완료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예방과 과원관리, 현장대응,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해 반딧불과수의 품질과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정책 기본방향 설정·추진전략·실행방안 마련

무주군은 지반 침하로 인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무주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정부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다.

이번에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은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기초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안전점검 매뉴얼을 작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지반침하와 관련된 중점관리시설 지정과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전국 공개모집을 통한 제1대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공직자와 교수, 전문가들로 모두 9명이 참여한다. 군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세부안을 마련해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중 무주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최종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무상 건설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매년 자치단체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7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본격 실시

### 홈페이지·도서관 방문 신청

장수군립도서관은 장수군 7개 도서관 어느 곳에서나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관에 없을 경우, 해당 도서관 상호대차 신청해 이용을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로 장수군 7개 도서관(군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소장 자료 공유와 대출·반납 서비스를 공유하게 되며, 이용자들은 필요한 도서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은 장수군립도서관 책임회원이거나, 상호대차 서비스를 받고 싶은 회원은 홈페이지(<http://lib.jangsug.go.kr>) 신청 또는 도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군립도서관은 장수군 7개 도서관 어느 곳에서나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kr) 신청 또는 도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 만전

무주군이 올해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연중 누수탐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는 올해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 전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성 향상을 위해 누수 의심지역에 대한 연중 누수 탐사를 집중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이장과의 협조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을 이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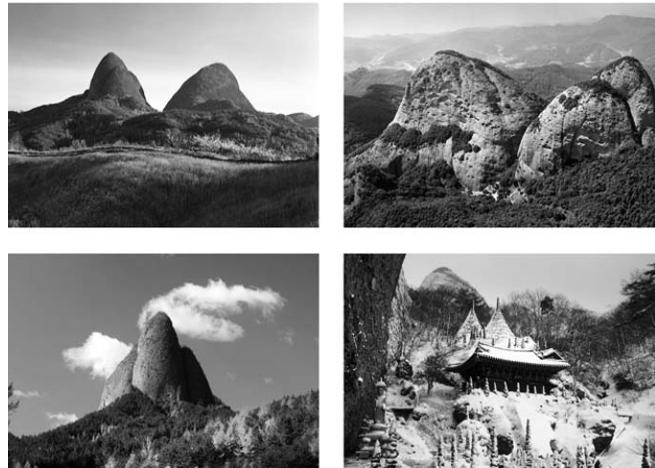
누수 의심구간에 대한 단계시험을 실시하고 누수지역에 대한 주·야간에 청음봉과 전자식 청음봉, 상관식 누수탐사기, 시야 등 장비로 누수 여부를 살핀다. 탐사결과 누수 의심지역의 경우 응급복구 공사를 실시한다.

군은 육내 급수관 중 누수 되어 초과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 요금담당(급수운영)부서에서 상수도 급수조

에 의해 일정부분(조례근거에 근거한 누수부분)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육내 누수 보수공사에 따른 복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지급 세계산서를 첨부해 누수발생 보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요금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조례 근거한 누수감면 부분)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마이산 남·북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마이산 시티투어를 실시한 업체를 지원한다.

## 진안군, 마이산 시티투어 업체 지원 나선다

### 관광객 20명 이상 모집 1개소 이상 관광·식당 식사 1식 포함 진행

진안군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마이산 남·북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마이산 시티투어를 실시한 업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관외 거주 관광객을 20명 이상 모집해 마이산 남부와 북부 각 1개소 이상 관광 및 마이산 남·북부(선택) 식당에서의 식사 1식을 포함해 진안군 일정으로만 구성해 일일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일 시티투어 종료 후 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되면 1회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메일로 계획서, 일정표,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티투어 종료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와 관광객 명단, 방문확인 증명, 단체사진, 영수증 원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마이산 시티투어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진안 마이산의 숨겨진 남부·북부 관광지가 널리 알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최경호 전교 신제일 유도회장

### 진안향교 차기 전교 유도회장 선출

진안향교(전교 손순기)와 성균관유도회진안지부(회장 이병진)는 지난 9일 향교 총요관에서 차기 전교와 유도회장을 선출했다.

선출된 차기 전교는 제44대 유도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한 최경호 향교원로가 선출되었으며, 유도회장은 제35대로 신제일 현 유도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선출된 전교와 유도회장은 수락 인사에서 "오늘 유림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유림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동참하고 협조하여 변화하는 진안향교가 되도록 하자"며 "앞으로 새로운 유림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등 모범 향교로 육성하여 향교의 정신을 오래도록 보존, 유지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산서면 유도회 향약회, 통합총회 개최

장수군 산서면은 지난 17일 산서면사무소에서 산서면 유도회(회장 장관빈) 및 향약회(도약장 육동수) 회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통합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두 단체는 전통문화를 숭상하고 미풍양속을 선양하는 유교사상을 실천하는데 있어 준립 목적이 유사하고, 회원의 80% 이상이 중복 가입 활동하고 있어 회원 및 임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산서면 유도회와 향약회를 통합·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합회 명칭은 '산서면 유도회'로 결정했으며, 회장에는 장관빈 씨가, 부회장에는 이부섭 씨가 각각 선출됐다.

산서면 유도회와 향약회는 충효 교실 운영, 매년 산서초등학교 장학금 기탁 등을 꾸준히 실천하며 애환 산서를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